

Aug  
2018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Aug  
2018

##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KEB 하나은행**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리

## 7월 동향 초반, 미-중 무역분쟁 우려 및 국내성장률 전망 하향 등으로 하락세 시현하다 후반, 한은 총재 금리인상 시사로 상승 전환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상승 출발 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우려로 하락 전환

- 7월 초,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가 이어지며 미 국채금리 상승에 동조화 양상을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확대되며 하락 전환
  - 7월 초, 전월 후반의 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core PCE deflator)의 예상치 상회로 따른 국채금리 상승 등 미 경제지표 호조 반영 속 연준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상승 출발
  - 그러나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에 대한 무역분쟁 심화 불확실성과 금통위에서의 금리동결 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리 강화로 국고채금리는 하락 전환

7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 및 정부의 성장률 하향 전환 등이 하락 모멘텀 제공

- 7월 중반,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음에도 소수의견 개진과 연준 의장의 대파적 기조로 상승 전환했으나, 정부의 성장률 하향으로 재차 하락
  - 7/12일 금통위에서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를 고려한 금리동결에도 1인의 소수의견 개진 영향으로 상승 전환
  - 그러나 이내 한은 뿐 아니라 정부마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경제 부진 우려 영향이 반영되며 하락세로 재차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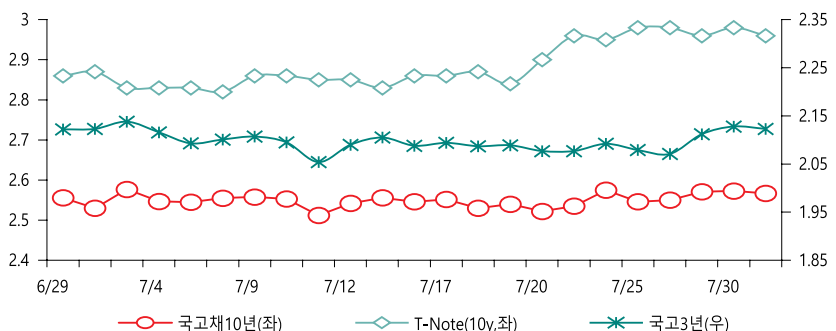
한은의 매파 성향 표명에 따라 월 후반 국고채 금리 상승추세 전환

- 7월 후반, BOJ 긴축 가능성 제기 및 미-EU간 무역분쟁 우려 완화 속 한은 금리인상 기조 시사 등으로 상승 마감
  - 7월 후반,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BOJ의 긴축적 금리정책 시사, 미-EU간 무역분쟁 우려 완화 등이 상승세를 견인
  - 여기에 대내적 한은 총재의 금리인상 스탠스 전환 가능성 시사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양상 시현

### 7월 평균

국고채(3년): 2.10%  
 국고채(10년): 2.55%  
 T-Note(10년): 2.89%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8월 전망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도 미-중 무역분쟁 이슈 확산 지속 가능성과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예상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국고채(3년,%)	2.24	2.21	2.10	2.15

-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금리인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스탠스와 경로는 미 경제 호조세를 반영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 미국 경제는 무역분쟁의 확산에도 고용지표 호조, 감세정책 효과 등으로 물가와 소매판매 지표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상
  - 이에 연준은 7월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독립적으로 연내 추가 2회 금리인상 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추가 對중국 관세 부과가 9월초로 다가오며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제한 가능성 확대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에 대한 미국의 1차 관세 부과 이후 무역분쟁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이나 8월말~9월초로 가며 추가로 예정된 2,000억 달러의 관세부과 이슈의 再점화 가능성이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은 스탠스가 다소 매파성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투자, 고용 및 물가 전반에 걸쳐 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 금리의 약보합 수준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7월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에도 국내 경제에 대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한미 금리차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을 제한할 전망
  - 7월 한은의 금리인상 소수의견 개진과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상 스탠스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지속 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들이 부재한 상황
  - 특히, 7월 한은과 정부가 전반적 국내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제의 하반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국고채 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운데 2.05%~2.15% 흐름 예상

미국 2분기 성장을 호조 속에 물가도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근접하며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9월 후반 재점화가 예상되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 속 한국경제의 부진한 흐름 전개 가능성은 국고채 금리의 최근 하락 추세를 지속시킬 전망

8월 국고채(3년) 금리는 2.05%~2.15%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한 미국 경기 회복세 속에 9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점증</li> <li>· 금통위의 소수의견 개진 반영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무역분쟁의 추가관세 부과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li> <li>· 한은과 정부의 국내 경제 부진에 따른 성장 전망 하향</li> </ul>

# 달러/원 환율

## 7월 동향 미-중 무역분쟁 확산 속 위안화 절하 지속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상 시사 후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

7월 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슈 속 안전 자산 선호 심리 확대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 리스트 발표와 위안화 절하 및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상 스탠스 등이 급격한 원화 약세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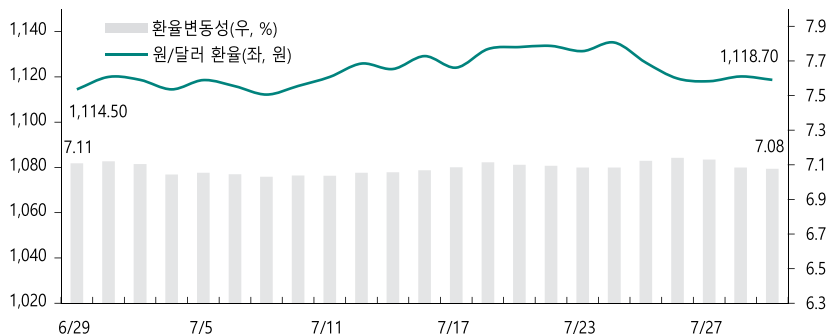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의지 속에 한은 금리인상 시사 등이 환율 방향성 전환에 영향

- 7월 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증시 폭락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확대되며 상승압력 확대. 이후 미 고용지표 혼조에 금리인상 부담 완화로 하락 전환
  - 7월 초,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폭락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1,120원대까지 상승 압력을 높이다 6일 관세부과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반락
  - 이어 미국의 고용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영향에 연준의 금리인상 부담이 완화되며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동조 속에 하락 추세 지속
- 7월 중반,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부과 리스트 발표 후, 환율은 1,130원대까지 상승 전환. 이후 중국 위안화 절하 영향과 연준의장의 매파적 금리인상 스탠스 재확인 등이 환율을 1,138원대까지 급등시킴
  - 6일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 이후 추가 제재 리스트 발표로 무역분쟁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극대화되며 환율은 1,130원대까지 급등
  - 이후, 중국이 무역분쟁 대응으로 위안화 절하를 지속하며 중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연준의장의 미국경기 호조에 따른 매파적 금리인상 시사로 달러 강세 확대되며 환율은 1,138원대까지 상승 지속
- 7월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과 달러약세 언급으로 상승세가 꺾인 후, 미-EU간 긍정적 무역협상 소식, 한은 금리인상 시사로 하락 추세로 전환
  - 7월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 금리인상 정책의 비판 강도를 높인 가운데 중국 환율정책에 의한 달러 강세를 크게 우려하며 달러화는 약세 전환
  - 여기에 미-EU간 무역협상의 긍정적 타결 소식, 한은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로 환율은 추가 하락을 보인 가운데 전월대비 4.2원 상승한 1,118.7원으로 마감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2.7원

7월말 달러/원 환율 : 1,118.7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8월 전망 월초 강달러 둔화 전망 속에 중반을 넘어가며 미-중 무역분쟁 이슈 再점화 우려, 약화된 한국경제 체질,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점진적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9.9	1,120	1,125

-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초반 완화 분위기 이어가며 위안화 약세가 제한되었으나 후반 추가관세 움직임이 재차 불거지며 위험회피 심리를 키울 전망
  - 8월 초반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중국 위안화 절하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경기 회복 등이 원화 강세를 지지할 전망
  -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따라 8월말로 가면서 무역갈등의 再확산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경기와 물가에 대해 연준이 강한 자신감을 표명한 가운데 9월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보다 높아지며 한-미 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될 전망. 이에 따른 외자 유출 지속 측면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확장세가 강해진 가운데 물가수준도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며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90%를 상회하는 양상
  - 한은은 금리인상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상존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 역전폭 확대 우려에 따른 외자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8월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월초 강달러 둔화 예상되나 후반 미-중 무역분쟁 이슈 再확산,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쇠퇴 및 9월 연준 금리인상 이슈 등으로 상승 전환 예상
  - 월초 무역분쟁 이슈 완화 속 전월 후반의 한은 금리인상 시사 영향 등으로 강달러를 제한하는 흐름이 예상
  - 그러나 월 후반으로 가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와 한국경제 긍정적 인식 쇠퇴, 미 금리인상 가능성 점증에 따른 대내금리차 확대 영향 우려 등으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 속에 1,095원~1,130원 범위 움직임을 보일 전망

월초 미-중 무역분쟁 이슈와 위안화 절하 영향이 완화되었지만 후반으로 가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이슈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전망

미국 경기에 대한 연준의 강한 자신감 표명 속에 9월 금리인상 전망 강화

8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95원~1,130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상존</li> <li>·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li> <li>· 위안화 절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의 금리인상 시사에 대한 기대감</li> <li>· 금등 쓸림 시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li> </ul>

# 엔/원 환율

## 7월 동향

**월초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에 주목하며 엔화 약세 시현. 이후 BOJ 정책조정 가능성이 엔화 강세 견인**

엔/원 환율 전월대비 11.9원 하락한 997.6원에 마감

-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따른 엔/원 환율 하락 후 위안화 약세에 동조된 원화 약세 영향 및 BOJ 긴축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 시현하나 원화 약세 진정되며 하락 마감
  - 월 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둔 경계감이 다소 높은 엔/원 환율을 견인하였으나 시행 후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자 환율은 하락 전환
  - 월 중반, 무역분쟁 우려 진정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됨에 따라 엔/원 환율은 1,000원 이하까지 하락. 이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된 원화 약세, BOJ 정책조정 가능성 등으로 엔/원 환율 가파른 상승
  - 월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및 한은의 금리인상 시사로 원화 약세 진정. 시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7월 BOJ 금정위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발표한 점도 엔/원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8월 전망

**BOJ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이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완화 및 엔화의 투기적 순매도가 강세를 제한할 전망**

달러/엔 환율의 하락 전망

- BOJ 조기 출구전략 기대감이 달러/엔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7월 BOJ 금정위에서의 통화완화 기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 BOJ의 장기금리 통제 완화 및 유연한 채권 매입 발언으로 시장의 조기 출구전략 기대감이 유효함에 따라 환율 하락이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완화가 달러/엔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엔/원 환율 상승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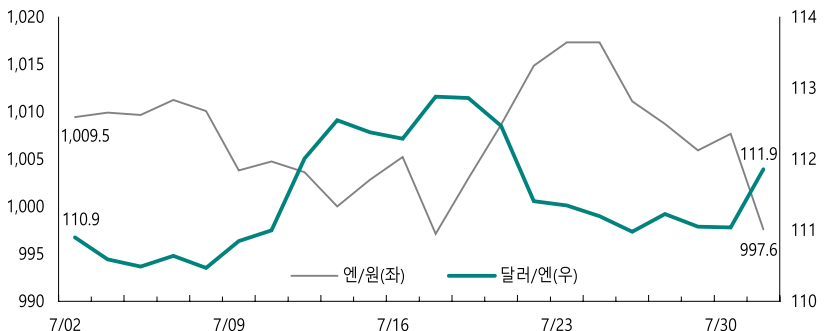
- BOJ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엔/원 환율 상승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 BOJ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위안화에 동조된 원화의 추가 약세 여지 등이 엔/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수급상 엔화의 투기적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엔/원 환율의 상승이 제한될 전망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1.5엔

7월 엔/원 평균환율 : 1,007.3원

8월 엔/원 예상 범위 : 990원~1,03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7월 동향** 정치불확실성 완화, 미-EU간 무역협상 진전 등 유로 강세 요인과 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에 따른 약세 요인이 혼재하여 유로/달러 환율은 박스권 내 변동. 유로/원은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상승 후 하락 시현

- 유로존 정치 및 경기 불안 완화 속 원화 약세가 유로/원 환율 상승 견인하였으나 월 후반 원화 약세 진정되며 환율 하락전환
  - 월 초, EU 정상회의의 난민 문제 합의로 유로/원 환율 상승 지속
  - 월 중반, 미-중 무역갈등 우려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및 ECB 드라기 총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 피력 등 유로화 강세 요인 속 위안화 약세에 연동된 원화 약세로 유로/원 환율 상승
  - 월 후반, 미-EU간 자동차 관련 무역협상 불확실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진정의 영향이 유로/원 환율 하락 견인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6.1원 상승한 1,308.6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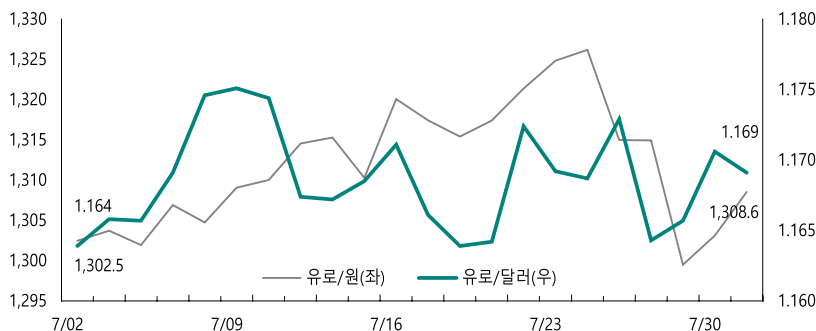
**8월 전망**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은 유로존 펀더멘털 개선 기대에 따른 유로화의 제한된 강세 영향 속 월 후반 ECB의 출구전략 언급 여부에 주목. 완화적 통화정책을 재확인시킬 경우 환율은 하락전환할 전망

- ECB의 출구전략 언급 여부가 유로/달러 환율의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
  - 미-EU 무역협상 우려 완화와 유로존 경기 개선세 등이 유로화 강세를 견인할 전망이나 유로/달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월 후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ECB의 출구전략 언급 기대감이 유로/달러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완화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 환율 방향성은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유로/달러 환율의 완만한 상승 속 위안화에 동조된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유로/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월 후반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환율 하락전환이 예상됨

유로/달러 환율의 완만한 상승 전망 속 출구전략 관련 언급 유무에 주목

유로/원 환율 상승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69달러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12.0원

8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85원~1,33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4/4	2/4	5월	6월	7월
전 산업 생산	2.3	0.7 [0.3]	1.1 [0.7]	1.6 [0.2]	0.0 [-0.7]	
제조업	1.6	-2.8 [-1.3]	0.4 [2.9]	1.0 [1.3]	-0.7 [-0.8]	
서비스업 생산	1.9	2.6 [1.0]	2.3 [0.2]	2.3 [-0.2]	1.7 [0.2]	
소매판매액	1.9	5.0	4.7	4.5	4.0	
설비투자	14.1	9.4	-5.7	-3.7	-13.8	
건건설기성액	10.1	1.5	-4.2	-3.2	-7.7	
경기선행지수	-	-	-	100.1	100.0	
실업률 (%)	3.7	4.3	3.9	4.0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5 [0.1]	1.5 [-0.2]	1.5 [0.2]
경상수지 (억달러)	-	-	-	86,806		
상품수지 (억달러)	-	-	-	113,86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13.5	-0.2	6.2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2.6	10.8	16.2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246	2,172	2,096
KOSPI (월말)	-			2,439.0	2,326.1	2,295.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2	2018.3	2018.4	2018.5	2018.6	2018.7
미국 USD	1,083.1	1,063.6	1,068.2	1,077.8	1,114.6	1,118.7
일본 JPY(100)	1,016.4	999.7	978.1	991.6	1,007.0	997.6
유로 EUR	1,324.3	1,309.4	1,295.3	1,257.3	1,297.3	1,308.6
영국 GBP	1,493.3	1,487.5	1,473.9	1,436.7	1,472.7	1,461.1
중국 CNH	171.1	169.7	169.2	168.4	167.8	164.2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8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b>1 美 FOMC</b> 한 7월 무역수지(\$6,321.0M) - 수출/수입 (-0.1%/10.7%, YoY) 7월 CPI(1.5%, YoY) 중 7월 Caixin 제조업PMI(51) 독 7월 Markit 제조업PMI[F] 유 7월 Markit 제조업PMI[F] 미 FRB 기준금리 (1.75~2.00%) 7월 Markit 제조업PMI[F] 6월 건설지출(0.4%, MoM) 7월 ISM 제조업지수(60.2)	<b>2</b> 유 6월 유로존 PPI(0.8% MoM, 3.0% YoY) 미 6월 제조업수주(0.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3</b> 한 7월 외환보유고(\$400,30B) 6월 경상수지(\$8,680.6M) 중 7월 Caixin 서비스/종합 PMI(53.9/53) 호 6월 소매판매(0.4%, MoM) 독 7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 유 7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 미 7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 7월 ISM 비제조업지수(59.1) 6월 무역수지(-\$43.1B)	<b>4</b> 8/3 계속 미 7월 고용동계 - 실업률(4.0%) - 비농업부문고용 자수변동(213K) - 시간당평균임금 (0.2%, MoM)
<b>5</b>	<b>6</b> 독 6월 공장수주(2.6%, MoM) 미국, 이란 제재 복원	<b>7 豪 RBA</b> 중 7월 외환보유고 (\$3,112,13B) 미 6월 소비자신용지수 (\$24,559B) 호 RBA 기준금리(1.50%)	<b>8</b> 중 7월 무역수지(\$41,61B) - 수출/수입 (11.3%/14.1%, YoY) 일 6월 경상수지(¥1,938.3B)	<b>9</b> 중 7월 CPI/PPI (1.9%/4.7%, YoY) 일 7월 핵심기계수주[P] (-3.7%, MoM) 미 6월 도매재고[F] 7월 PPI/Core (0.3%/0.3%, MoM) (3.4%/2.8%, YoY)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10</b> 일 7월 PPI(2.8% YoY) 미 7월 재정수지(-\$74.9B) 7월 CPI/Core (0.1%/0.2%, MoM) (2.9%/2.3%, YoY)	<b>11</b>
<b>12</b>	<b>13</b>	<b>14</b> 중 7월 광공업생산 (6.0%, YoY) 일 6월 광공업생산[F] 독 8월 ZEW 경기기대지수 (72.4) 7월 CPI[F] 유 7월 ZEW 경기기대지수 (-18.7) 6월 유로존 산업생산 [SA](1.3%, MoM) 미 7월 수출/수입물가 (0.3%/-0.4%, MoM)	<b>15 광복절</b> 미 7월 소매판매(0.5%, MoM)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22.6) 7월 광공업생산(0.6%, MoM)	<b>16</b> 일 7월 무역수지(¥721.4B) - 수출/수입 (6.7%/2.5%, YoY) 미 8월 필라델피아연준 경기전망(25.7)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17</b> 유 7월 유로존 CPI(0.1% MoM, 2.0% YoY) 미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P] 7월 경기선행지수(0.5%)	<b>18</b>
<b>19</b>	<b>20</b> 독 7월 PPI(0.3%, YoY)	<b>21</b> 한 7월 PPI(2.6%, YoY)	<b>22</b> 미 7월 기준주택매매 (5.38M, -0.6% MoM) FOMC Meeting Minutes	<b>23 韓 GDP, ECB 통화정책회의</b> 독 8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유 8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8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7월 신규주택매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잭슨홀 미팅(~25)	<b>24</b> 일 7월 CPI(0.7%, YoY) 미 7월 내구재 수주[P] - 운송제외 - 항공기제외비국방 자본재수주	<b>25</b>
<b>26</b>	<b>27</b> 독 8월 Ifo 기업환경지수 미 7월 시카고연방 국가 활동 지수(0.43) 8월 달러스연준 제조업 지수	<b>28</b> 미 8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7월 도매재고[P] 6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b>29 美 GDP</b> 독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미 2Q 개인소비[S] 2Q GDP 연강화 QoQ[S] 7월 미결주택매매	<b>30</b> 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비제조업	<b>31 韓 금동연</b> 한 BOK 기준금리(1.5%) 7월 광공업생산 중 8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일 7월 광공업생산[P] 미 8월 시카고PMI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F]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 안은 이전치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